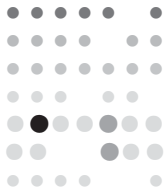


표지면지

I. 농식품산업 이슈 분석

1.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식품 수출입 변화
2. 일본의 농식품 소비패턴 및 교역정책 변화
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주는 시사점
4. 결론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농식품 수출입 변화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주는 시사점

* 작성자 : 문한필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일본의 농식품 수출 변화]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2008년 5.98조 엔에서 원전사고 한 해 전인 2010년 4.83조 엔으로 감소하였으나, 원전사고 발생 이후 5.58조 엔으로 늘어난 후 최근까지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은 2011년 28.6백억 엔 수준에서 사고 이후 이전 수출실적의 약 7.3%인 2백억 엔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진흥정책과 엔저현상 등에 힘입어 회복세에 있다.

[일본 내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불안을 가진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신선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일본 내 농식품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불안감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또한 면류 및 냉동식품, 생수 등을 가정에 비축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였다.

[일본정부의 농식품 수출 정책 변화]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이후 정보공개, 검사체계 및 생산이력추적제 강화 등의 방식으로 수출대상국의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농식품 수출 재도약을 위해 수출환경 정비, 품목별 수출단체 설립, 수출 브랜드 통합(Japan 브랜드), 수출모델지구 선정 등 다양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농식품 수출전략] 첫째,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품목이 냉동채소임을 감안하여 국내 공급과잉 상태인 채소류를 냉동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일본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가축질병과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열처리 가공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원전사고 및 중국 내 반일감정 고조 등 요인으로 인해 일본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시장(홍콩, 대만, 동남아 등)에서 일본산 농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타겟마케팅을 수반하는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식품 수출입 변화

1) 개황

일본의 농림수산 부문 수출은 원전사고¹⁾에도 불구하고 약진

-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농림수산 부문은 최근 아베정권의 엔저 기조에 따른 영향 등으로 회복세에 있다.

※ 환율(JPY/USD) 추이: ('08) 103.4 → ('09) 93.6 → ('10) 87.8 → ('11) 79.8 → ('12) 79.8 → ('13) 97.6

농림수산 부문 수입은 원전사고 이후 크게 증가

- 일본의 농림수산 부문 수입액은 원전사고 이후('11~'13)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 확산으로, 사고 이전('08~'10)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원전사고 직후 농축수산물 등의 검사 결과(2011.3.19), 시금치, 원유,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 물질의 잠정 규제치(500 베크렐/kg)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었다.

최근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100억 엔,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출	전체(A)	8,102	5,417	6,740	6,555	6,375	6,977	-1.7
	농림수산(B)	51	45	49	45	45	55	0.4
수입	전체(C)	7,895	5,150	6,077	6,811	7,069	8,124	15.1
	농림수산(D)	871	667	712	807	792	895	10.9
무역수지(A-C)		206	267	663	-256	-694	-1,147	
농림수산무역수지(B-D)		-820	-622	-663	-761	-747	-840	

주: 사고전후 증감률은 원전사고 발생년도('11년)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08~'10) 평균과 이후 3개년('11~'13) 평균 수치의 증감비율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1)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최소치는 5조 5,045억엔, 최대치는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 일본의 농식품 수입 변화

◆ 원전사고 전후(3개년 기간 평균) 농산물 수입은 11.7% 성장

- 일본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8년 5.98조 엔에서 원전사고 전년인 2010년 4.83조 엔으로 감소하였으나, 원전사고 발생 이후 5.58조 엔으로 늘어나 최근까지 증가세에 있다.

▮ 일본의 농림수산 부문 수입 현황 ▮

(단위: 100억 엔,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농림수산	871	667	712	807	792	895	10.9
농산물	598	456	483	558	544	614	11.7
	(68.7)	(68.4)	(67.8)	(69.2)	(68.7)	(68.5)	
임산물	116	81	92	103	97	124	12.1
	(13.3)	(12.1)	(12.9)	(12.7)	(12.3)	(13.8)	
수산물	157	130	137	145	150	158	7.1
	(18.0)	(19.5)	(19.3)	(18.0)	(19.0)	(17.6)	

주: 1) 사고전후 대비 증감률은 원전사고 발생년도('11년)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08~'10) 평균과 이후 3개년('11~'13) 평균 수치의 증감률임.

2) 괄호는 농림수산 수입총액에 대한 구성 분야의 비중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 곡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 확대

- [곡물류] 2011년 이후 잦은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주요 생산국의 작황저조와 국제 가격 불안정성 확대로 수입량 및 수입액은 감소하였다.
- [채소·과일·육류] 원전사고로 인한 자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불안 확대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 (냉동채소)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채소 수급 약화와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증가로, 인접국인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원전사고 이전 대비 수입 증가
 - ※ 중국: 수입량(24.3% ↑²⁾), 수입액(41.3% ↑) / 대만: 수입량(23.9% ↑), 수입액(21.8% ↑)

2) 원전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임.



- (신선·건조 과일) 주요수입국인 대미국 수입량은 기상이변에 따른 오렌지 및 과실류의 생산량 감소로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 미국: 수입량(43.9%↓), 수입액(5.9%↑) / 필리핀: 수입량(22.5%↑), 수입액(2.9%↓)
-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 ※ 호주: 수입량(12.1%↓), 수입액(9.5%↓) / 미국: 수입량(104.0%↑), 수입액(106.0%↑)
-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멕시코 칠레 등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 ※ 미국: 수입량(0.6%↓), 수입액(0.4%↓) / 캐나다: 수입량(7.0%↓), 수입액(7.0%↓) / 덴마크: 수입량(13.2%↓), 수입액(13.2%↓) / 기타국: 수입량(22.4%↓), 수입액(22.2%↓)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입 품목의 수입 변화 ■

(단위: 억 엔, 천 톤,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옥수수	16,314	4,252	14,859	4,330	-8.9	1.8
밀	5,320	2,068	6,128	2,033	15.2	-1.7
대두	3,519	1,896	2,773	1,575	-21.2	-16.9
커피콩	396	1,132	418	1,426	5.5	26.0
냉동채소	789	1,095	928	1,372	17.6	25.3
신선·건조과일	1,910	2,292	1,865	2,389	-2.4	4.2
쇠고기	480	2,032	523	2,328	8.8	14.6
돼지고기	758	3,981	770	4,048	1.6	1.7
닭고기	392	1,024	437	1,116	11.4	8.9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기간의 평균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 주요 농식품 수입대상국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

- [미국] 2011년 이후 이상기온으로 인해 주요 수입품목인 곡물류와 과실류의 작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수입 감소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 ※ 미국은 일본의 최대 곡물(옥수수, 밀, 콩) 수입대상국임.

- [중국] 원전사고 이후 채소류와 닭고기 조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 [호주] 주요 수입 품목인 쇠고기 수입은 감소한 반면, 밀, 유채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은 원전사고 전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브라질] 원두커피, 닭고기, 대두 등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입은 원전사고 전후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변화 ■

(단위: 억 엔,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미국	15,131	29.5	13,989	24.5	-7.5
중국	5,373	10.5	6,641	11.6	23.6
호주	4,014	7.8	4,018	7.0	0.1
캐나다	3,493	6.8	3,825	6.7	9.5
브라질	2,138	4.2	3,169	5.5	48.2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기간의 평균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업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3) 일본의 농식품 수출 변화

◆ 농식품 수출은 원전사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회복세

- 일본의 농산물 수출액은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한 해 전인 2010년 28.6백억 엔 수준에서 사고 이후 이전 수출실적의 약 7.3%인 2백억 엔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엔 저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농림수산 부문 수출 현황 ■

(단위: 100억 엔,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농림수산	51	45	49	45	45	55	0.4
농산물	28.8	26.4	28.6	26.5	26.8	31.4	1.0
	(56.8)	(59.2)	(58.2)	(58.8)	(59.6)	(57.0)	
임산물	1.2	0.9	1.1	1.2	1.2	1.5	24.1
	(2.3)	(2.1)	(2.2)	(2.7)	(2.6)	(2.8)	
수산물	20.8	17.2	19.5	17.4	17.0	22.2	-1.7
	(40.9)	(38.7)	(39.6)	(38.5)	(37.8)	(40.3)	

주: 1) 사고전후 증감률은 원전사고 발생년도('11년)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08~'10) 평균과 이후 3개년 ('11~'13) 평균 수치의 증감비율임.

2) 괄호는 농림수산 수입총액에 대한 구성 분야의 비중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 쇠고기, 주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도모

- [사과] 원전사고 발발 이후 일본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대만,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사과 수출이 감소하였다.
※ 대만: 수출량(32.7%↓), 수출액(13.2%↓) / 중국: 수출량(37.5%↓), 수출액(25.6%↓)
- [쇠고기]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외규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펴는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홍콩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쇠고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홍콩: 수출량(111.8%↑), 수출액(99.4%↑) / 캄보디아: 수출량(71.3%↑), 수출액(47.8%↑) / 싱가포르: 수출량(36.3%↑), 수출액(29.9%↑)
- [소스, 혼합 조미료] 소스 및 혼합 조미료 수출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냈고, 특히 태국 수출이 원전사고 전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태국: 수출량(86.2%↑), 수출액(57.1%↑) / 미국: 수출량(7.1%↑), 수출액(8.6%↑)
- [주류] 일본 맥주와 청주(사케)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증가로 인해 일본의 주류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미국: 수출량(25.4%↑), 수출액(12.0%↑) / 한국: 수출량(153.3%↑), 수출액(81.0%↑) / 대만: 수출량(87.2%↑), 수출액(25.5%↑)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의 수출 변화 ■

(단위: 억 엔, 톤(kℓ),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사과	22,389	64	15,581	57	-30.4	-11.6
밀가루	190	65	184	62	-2.9	-4.8
쇠고기	563	37	781	48	38.8	27.4
종자	1,631	106	1,451	106	-11.0	0.6
과자(쌀 과자 제외)	10,520	104	8,991	98	-14.5	-6.3
가공식품(어육, 소시지 등)	7,421	57	7,383	54	-0.5	-6.0
소스, 혼합 조미료	38,975	197	39,634	203	1.7	3.3
주류	46,366	167	66,521	216	43.5	29.5
청량음료	44,392	110	47,228	115	6.39	5.28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기간 평균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 홍콩을 제외한 5대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실적 악화

- [홍콩] 일본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판촉노력으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원전사고 전후 대비 소폭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 [대만, 미국, 한국, 중국] 홍콩에 이어 일본의 주력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전체 농식품 수출 중 50% 차지) 이들 4개국에 대해서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 농식품 수출이 감소하였다.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액 변화 ■

(단위: 억 엔,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홍콩	509	18.2	518	18.4	1.8
대만	532	19.0	508	18.0	-4.4
미국	464	16.6	448	15.9	-3.4
한국	272	9.7	255	9.0	-6.3
중국	215	7.7	187	6.6	-13.1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기간의 평균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4) 일본의 대한민국 농식품 교역 변화

◆ 일본의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주력 품목인 주류 및 혼합조미료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자, 과자, 어육 및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 수입: 원전사고 이후 지정학적 인센티브로 인하여 신선식품, 가공식품 전 부문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파프리카를 비롯한 신선 채소류 수출이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늘었다.

【 일본의 대한민국 농식품 교역 추이 】

(단위: 억 엔,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출	283	259	275	273	243	250	-6.3
	(9.8)	(9.8)	(9.6)	(10.3)	(9.1)	(8.0)	
수입	737	733	818	995	1,060	2,061	80.0
	(1.2)	(1.6)	(1.7)	(1.8)	(1.9)	(3.4)	
무역수지	-454	-474	-542	-722	-817	-1,812	

주: 1) 사고전후 증감률은 원전사고 발생년도('11년)를 기준으로 이전 3개년('08~'10) 평균과 이후 3개년('11~'13) 평균 수치의 증감비율임.

2) 괄호는 일본의 농식품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 소주를 제외한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증가

- [파프리카] 최근 엔저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 [김치] 지진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자제와 절약경향, 일본산 신상품 대거 출시, 한일 관계악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토마토] 외식체인점 등 상업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인삼] 2012년 홍삼음료 등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였다.

- [소주] 희석식 소주시장의 포화와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츄하이, 하이볼 등 혼합주류 소비증가) 및 막걸리로의 소비 대체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 [막걸리] 소비자 취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진출업체의 증가, 유통망 및 홍보 확대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였다.
 - ※ 제품에 단맛, 탄산을 가미하고 신맛, 쓴맛, 도수는 낮았으며, 과일, 검은콩, 생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 출시로 여성 소비층에 인기
- [라면] 원전사고 이후 라면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였다.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대한민국 주요 농식품 수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신선 식품	파프리카	17.0	55.2	19.8	80.4	16.5	45.7
	김치	24.0	78.5	20.9	79.1	-12.9	0.8
	백합, 장미	5.6	45.4	4.8	49.9	-14.8	9.9
	인삼	0.7	30.4	0.6	34.0	-10.0	12.0
	유자차	2.5	8.3	3.0	10.9	20.0	31.9
	닭고기	1.0	4.8	1.8	9.3	84.2	94.2
	토마토	0.9	2.6	2.4	8.5	170.5	234.0
가공 식품	소주	68.2	98.9	57.0	91.3	-16.3	-7.7
	라면	7.4	29.2	9.2	42.6	24.3	45.6
	대두박	39.5	16.6	62.2	32.9	57.4	98.5
	막걸리	9.0	8.3	25.8	31.3	188.5	275.9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 기간의 평균임.

출처: 농림수산물수출입 동향 및 통계

◆ 주류, 혼합 조미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목, 수출 실적 저조

- [주류] 한국에서 일본 맥주와 청주(사케)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주류 수출액은 원전사고 전후대비 81% 증가하였다.
- [종자] 종자에 관한 검역·통관 규정이 강화되었고 유럽 및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였다.



- [어육 및 소시지]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서 일본산 원료로 만든 제조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은 원전사고 전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대한민국 주요 농식품 수출 추이 ■

(단위: 억 엔, 천 톤, %)

구분	2008~10년		2011~13년		사고 전후 대비 증감률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주류	9.2	19.9	23.4	36.0	153.3	81.0
혼합 조미료	3.5	17.6	4.2	20.2	20.9	14.5
증자	0.2	17.9	0.1	13.5	-33.6	-24.7
과자(쌀과자 제외)	1.3	11.4	0.7	6.7	-41.8	-41.3
어육 및 소시지	0.3	1.9	0.3	1.3	-1.4	-28.6

주: 물량 및 금액은 해당 기간의 평균임.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2. 일본의 농식품 소비패턴 및 교역정책 변화

1) 일본 소비자의 인식변화

● 원전사고 직후 신선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농식품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최근 회복세

- 시금치, 표고버섯, 양배추, 파, 복숭아 등 사고지역 인근지역이 주산지인 품목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³⁾ 2011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다.
- 농식품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면류 및 냉동식품, 생수 등을 가정에 비축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다.⁴⁾ 또한, 자체적인 방사능 검

3)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검사대상137,037건 중 1,204건에서 검출 확인). 이에 대해 잠정기준치를 상회한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와 카키나, 후쿠시마산 원유에 대해 출하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검사품목과 지역은 376개 품목, 1도 7현(도쿄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4) 예를 들어 유기식자재를 공급하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경우, 2011년 7월 시점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83% 증가

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안전성을 내세운 생협 등의 단체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품목별 농식품 소비 추이(2010~13년) ■

(단위: 억 엔,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10~'11	'11~'12	'12~'13
식료소비전체	772,546	766,320	768,690	780,450	-0.8	0.3	1.5
외식	160,024	157,673	158,675	164,140	-1.5	0.6	3.4
어패류	67,055	64,441	63,620	64,282	-3.9	-1.3	1.0
육류	59,716	60,392	59,162	62,156	1.1	-2.0	5.0
신선야채	53,922	52,778	52,716	54,446	-2.1	-0.1	3.3
신선과일	29,956	29,461	29,989	29,748	-1.7	1.8	-0.8
소고기	15,023	14,578	14,338	15,547	-3.0	-1.6	8.4
돼지고기	18,496	19,113	18,353	19,302	3.3	-4.0	5.2
닭고기	9,540	9,890	9,870	10,198	3.7	-0.2	3.3
양배추	2,188	2,017	2,070	2,253	-7.8	2.6	8.8
시금치	1,766	1,690	1,753	1,729	-4.3	3.7	-1.4
배추	1,039	991	949	1,086	-4.6	-4.2	14.4
파	2,499	2,342	2,302	2,375	-6.3	-1.7	3.2
표고버섯	1,709	1,586	1,491	1,533	-7.2	-6.0	2.8
미역	1,154	1,006	1,040	1,112	-12.8	3.4	6.9
사과	3,901	3,875	3,928	4,300	-0.7	1.4	9.5
배	1,624	1,657	1,702	1,623	2.0	2.7	-4.6
복숭아	1,078	1,001	1,075	1,016	-7.1	7.4	-5.5
생수	2,287	3,121	2,884	2,874	36.5	-7.6	-0.3

출처: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통계 각 연도.

◆ 신선 농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불안감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 최근 2년간(2013~14년) 소비자청이 실시한 소비자 조사⁵⁾에서는 식품구입시 원산지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7%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다수가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구입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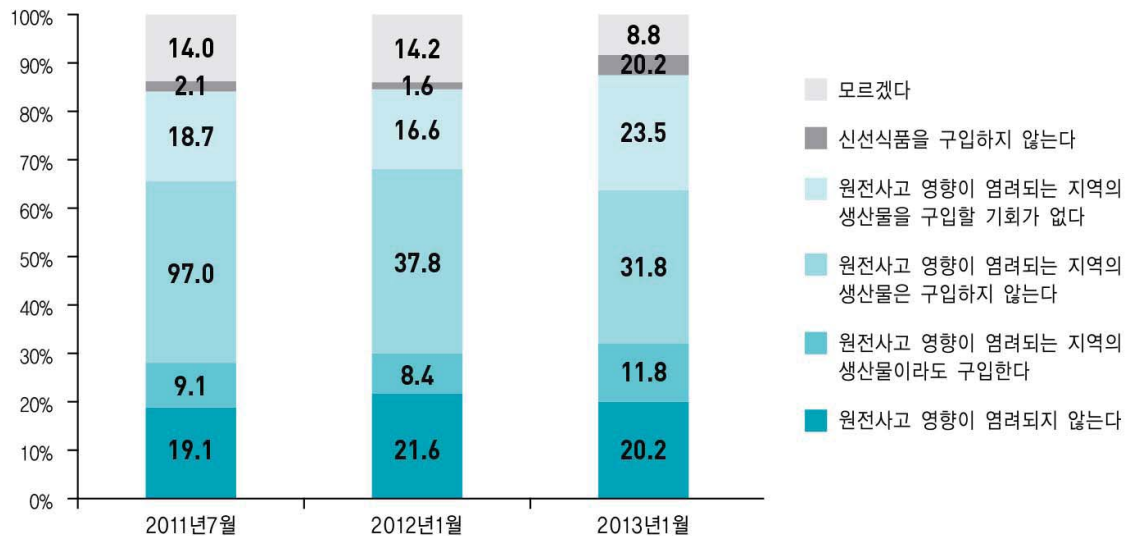
※ 원산지를 고려하여 구입하는 식품은 채소, 쌀, 신선어패류, 과일 순으로 나타났다.

5) 재해지역과 재해지역 농산품의 주요 소비지인 도쿄 등 수도권의 소비자 5,176명을 대상으로 실시



-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정책금융금고가 실시한 소비자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⁷⁾은 2011년 7월에는 37.0%, 2012년 1월에는 37.8%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3년 1월에는 31.8%로 하락했다.
 - 2013년 1월 조사에서 원전사고가 신선식품 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2%, 사고지역의 생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소비자가 31.8%로 나타나, 원전사고를 의식하는 소비자는 매년 감소한 반면, 의식하지 않는 소비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원전사고 영향을 개의치 않는 이유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38.3%, 재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재해지역을 응원하고자」가 27.8%로 나타났다.

■ 일본 소비자의 신선식품 구입에 미친 원전사고의 영향 조사결과 ■



출처: 일본정책금융금고(2013) 「2013년 동일본재해소비자동향조사결과」

6) 일본정책금융금고, 전국의 20세~70세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2013년 1월 간 3회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7) '원전사고 영향이 염려되는 지역의 생산물은 구입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임.

- 일본정책금융금고가 2014년 1월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재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지역 지원을 위해 식료품을 구입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70.1%로 높게 나타났다.

2)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 원전사고 이후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재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2011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9% 감소하였다.
- 2014년 4월 현재, 37개국에서 수입규제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12개국은 재해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일본산 농산품에 대해 전품목 혹은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이다.
 - (중국) 피해지역 이외 도쿄, 니이가타현 등 일본 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농식품 수입도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한국)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 9개 현의 농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한조치 대상지역과 품목 ■

수출대상국	대상 지역	품목
홍콩	후쿠시마현, 토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야채, 과일, 유제품, 분유
미국	일본 국내 출하제한 조치 지역	일본 국내 출하제한 조치 품목
대만	후쿠시마현, 토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전품목
중국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 니이가타현, 나가노현	전품목, 사료
한국	일본 국내 출하제한 조치 지역	일본 국내 출하제한 조치 품목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	전체 수산물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공표자료, 2014년 7월 9일 현재.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검사체계와 생산이력추적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소비촉진 캠페인 적극 실시

- [공급측면 대응] 재해지역에서는 원전사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도 농식품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들 지역에서는 농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검사와 생산이력추적제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후쿠시마지역은 2012년부터 생산된 모든 쌀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소비측면 대응] 소비자의 식품과 방사능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 실시 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재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함으로써 부흥을 지원하자는 의미로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농식품 수출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

- 일본 정부는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수출대상국에 제공하여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수입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주요 수출대상국, 지역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매체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현재 상태와 방사선량 정보, 식품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 등 일본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사 상황,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직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파견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각국에서 요구하는 방사성물질 검사 및 각종 증명서 발급과 원만한 수출 진행을 위해 창구를 중심 지역마다 설치하였으며, 사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발급양식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일본의 포스트 TPP 농정개혁과 수출진흥정책 추진

- 아베 정권은 TPP 협상에 대응하고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환경을 정비중이다.
 - ※ 일본 농식품 수출 목표: ('20년) 1조 엔 → ('30년) 5조 엔

- 수출장벽이 되고 있는 국내외 규제를 개혁하고 수출대상국이 원하는 규격의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출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 특히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신선품의 수출에는 냉장수송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유망 수출대상지역인 아시아, 중동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본정부가 콜드체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수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일본 정부는 국제규격 인증 취득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단체, 단위농협 등 그룹인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 국내 GAP체계의 국제규격화를 목표로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고자 EU의 HACCP 인증 취득을 장려하고, 인증 신청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국산 가공품에는 널리 이용되나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칙색소, 베니코지색소, 베니바나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고품질의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생산·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출단체를 설립하고 수출 브랜드 통합 작업(Japan 브랜드)을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특정지역 및 시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농식품이 집중적으로 출하되어 산지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중 안정적으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일본 정부는 농식품 수출 진흥 체계를 확립하고 수출대상국의 시장정보, 고객 성향을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단체 설립에 착수하고 수출 브랜드를 Japan 브랜드로 통합하였다.
- 세계적인 판로 개척 경험을 지닌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의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 수출단체간 연계 강화를 위해 프랑스 식품진흥회(SOPEXA)와 함께 국가, 시장별 수출전략 구축, 판로 개척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 (수출모델지구) HACCP 인증, 할랄 인증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 및 수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출모델지구를 육성할 방침이다.
 - 전국에 5개 모델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 후, 향후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주는 시사점

❖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품목은 냉동채소임.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고 증가폭도 크지만, 위생·안전성과 반중감정의 고조 등 요인을 감안하면 국내 공급과잉인 채소류를 냉동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냉동채소는 2010년에 기상악화로 인한 일본 내 생산 감소와 2011년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수입채소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신선채소보다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채소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2012년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채소의 95% 이상이 가공용·외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외식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냉동채소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일본의 국별 냉동채소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201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산동성과 강소성에 농산물 수출을 위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격 및 조건에 맞춘 생산 및 가공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일본의 국별 냉동채소 수입 동향(2010~13년) ■

(단위: 억 엔, %)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위	중국	480	42.8	556	46.1	605	45.3	750	47.6
2위	미국	369	32.9	357	29.6	404	30.3	427	27.1
3위	태국	86	7.7	88	7.3	95	7.1	102	6.5
4위	대만	48	4.3	51	4.2	56	4.2	65	4.1
5위	캐나다	33	2.9	35	2.9	32	2.4	49	3.1
6위 이하	기타	105	9.4	118	9.8	142	10.7	181	11.5
냉동채소수입 전체		1,120	100	1,206	100	1,335	100	1,575	100

출처: 일본농림성, 농수산물수출입통계

- 2008년에 발생한 중국 만두사건으로 일본의 중국산 채소수입이 급감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산 채

소의 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 확대, 생산증가, 소비감소 등 국내 수급여건상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냉동채소 물량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경우, 일본으로의 축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가축질병과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열처리 가공품의 개발과 판로개척을 모색해야 함.**

- 돼지고기 정육 및 부산물의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구제역 및 돈열 완전청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가금육의 경우도 국내 AI 발생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던 일본과의 검역협상이 중단되었다.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생육 수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에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열처리 가공품 등 다양한 수출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최근('14.2.9~14) 일본 측의 현지검점 이후 열처리 돈육 수출작업장 4개소가 추가로 승인을 받아, 현재 6개 업체가 일본으로의 수출을 추진 중이다.

◆ **농식품의 안전성을 주요 강점으로 어필해 왔던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해외수요가 원전사고 이후 급감한 바 있음. 하지만 △ 해외소비자들의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저하 △ 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2013년 12월 일본음식(와소쿠:和食)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등 요인에 힘입어 3년이 경과한 현재는 농식품 수출액이 원전사고 전 상태를 회복함.**

- 원전사고 이후 교역상대국의 일본산 농식품의 수입정지,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등 각종 수입규제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구매를 꺼려하는 해외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일본식 레스토랑도 경원시하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 그러나 원전사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년의 경우 일본의 상위 농식품 수출대상국인 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에 대해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홍콩, 대만, 미국에 대한 2013년 농식품 수출액은 원전사고 전인 2010년의 수출액을 상회하였다.⁸⁾ 반면, 한국과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은 여전히 원전사고 이전 수준

8) 미국은 원전사고 이후 일본 국내에서 지정한 출하제한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금지조치를 취하여 다른 주요 수출대상국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다. 대만에서 일본산 과일은 현지에서 고급 선물용으로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분유의 경우,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사건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이 2010년 142억 엔까지 증가하였으나, 원전사고 이후 2011년에는 3분의 1수준, 2012년에는 10분의 1이하 수준까지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2010년 대비).

● 따라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시장(홍콩, 대만, 동남아 등)에서 일본산 농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타겟마케팅 전략을 수반한 시장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함.

● 원전사고 이후 중국은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니이가타현, 나가노현 등 10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전면 중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관해서도 원산지증명서와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로 인해 다른 주요 수출상대국에 비해 수출액 회복이 더딘 상태이다.

● 한국산이 가지는 식품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의 우위점을 활용하여 일본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한다면 해외 수출시장에서 일본산을 대체의 기회가 존재한다.

● 최근 검역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의 관문인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진 열처리가공품('14.3.6)과 돼지고기 및 부산물('14.4.10) 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의 홍콩 수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뒤이어 중국시장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역당국도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확대(일본산 대체)를 위해선 일본의 주력시장에 해당하는 국가와의 검역협상이나 수출절차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기가 높으며, 이외에도 가정 소비용으로도 판매되고 있어 폭넓은 수요가 존재한다. 대만으로의 수출액은 2010년 609억 엔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591억엔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610억 엔으로 사고 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13년에는 735억 엔으로 대폭 증가했다.

■ 일본의 주요 수출대상국별 상위 10대 농식품 수출 품목(2013년) ■

(단위: %)

구분	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위	진주	9.9	가리비	13.8	담배	20.1	가리비	18.5	알코올 음료	11.8
2위	건조해삼	7.5	방어	9.0	사과	8.2	연어	10.8	가리비	6.2
3위	담배	4.9	알코올 음료	7.2	산호	7.1	명태	7.5	소스혼합 조미료	5.1
4위	과자	3.2	진주	4.0	소스혼합 조미료	5.2	정원수	6.5	도미	4.3
5위	밀가루	3.1	식물성 유지	4.0	알코올 음료	3.9	종자	4.3	종자	3.2
6위	가리비	2.9	녹차	3.8	돈피	3.7	알코올 음료	2.8	담배	2.9
7위	돈피	2.7	생선어묵	2.9	가리비	3.0	통나무	2.8	배합 조제사료	2.7
8위	알코올 음료	2.2	청량음료	2.1	과자	2.7	가다랭이	2.4	명태	2.4
9위	청량음료	1.8	젤라틴	2.0	청량음료	2.0	덱스트린	2.4	소말가죽	2.1
10위	소스혼합 조미료	1.7	과자	1.5	참마등	1.5	청량음료	2.4	통나무	2.1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2013

4. 결론

-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농식품 수출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다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여전히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일본의 농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을 염려해 수입 중단이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 △ 해외소비자들의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저하 △ 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2013년 12월 일본음식(와쇼쿠:和食)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영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임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식품 안전성 인증 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냉동채소로, 일본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품목 중 냉동채소 수출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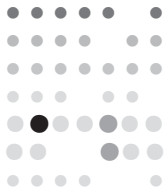
- 2010년 기상악화로 인한 일본 내 생산감소와 2011년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냉동채소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 과거 만두파동과 멜라민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채소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식품안전성에 특히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일본규격 및 조건에 맞춘 생산 및 가공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국산 채소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는 일본산 농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과 수요를 연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및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원전사고 이후 중화권 국가들은 일본의 10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전면 중지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관해서도 산지증명서와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산물 및 농식품 등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을 공략하여 한국산의 식품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국제 금융시장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1. 국제 외환시장

●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 하락, 저물가 지속 등 경제지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완화 정책 시행 기대로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에 비해 강세로 나타났다.
 -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지역의 저물가가 지속되는 데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비전통적 정책 수단 등을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7/3).
- 또한 포르투갈의 최대 금융 지주회사의 회계 부정 및 채무불이행(7/10)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된 점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일본 엔화의 경우 5월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포르투갈의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재부각 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로 나타났다.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무역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어 상승세를 제한하였다.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4.7.18 (현재)	2014.6.18 (1개월전)	2013.7.18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80.524	80.393	82.823	0.2%	-2.8%
달러/유로	1.3524	1.3590	1.3019	-0.5%	3.9%
엔/달러	101.34	101.92	100.43	-0.6%	0.9%
위안/달러	6.2080	6.2308	6.1413	-0.4%	1.1%
원/달러	1029.5	1022.4	1126.3	0.7%	-8.6%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리비아와 이라크 정정 불안과 관련하여 원유 공급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세에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등하였다.

- 리비아 정부와 반군이 주요 석유 수출항인 Es Sider 항과 Ras Lanuf 항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7/2)한 데 이어,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는 일평균 34만 배럴의 원유생산능력을 보유한 El Sharara 유전의 가동을 재개했다고 발표하였다(7/8).
- 내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남부지역 유전의 원유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라크의 7월 원유 수출량이 일평균 280만 배럴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블룸버그, 7/7)되어 이라크 관련 원유 공급차질 우려가 완화되었다.
- 다만, OPEC이 선진국의 석유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15년 세계 석유소비량을 2014년(하루 113만 배럴) 대비 증가한 하루 121만 배럴로 전망(7/10)한 것은 이러한 유가 하락세를 제한하였다.
- 이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격추되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7/17)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어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전환되었다.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4.7.18 (현재)	2014.6.18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103.13	106.06	-2.8%
Dubai유	105.71	109.94	-3.8%
Brent유	106.85	114.25	-6.5%

출처: Bloomberg.

◆ 주요 곡물 가격은 원활한 작황,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관련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맥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

- 소맥 가격은 파종 면적 확대, 재고량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하락하다가 우크라이나 관련 불안이 고조되면서 흑해연안의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미 농무부(USDA)의 파종 및 재고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 시즌 봄밀 파종면적은 1,271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10% 상승하였다(6/30).
 - 또한 미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보고서에서는 2014/15 시즌 전 세계 소맥 재고량을 전월대비 93만 톤 상향 조정한 1억 8,954만 톤으로 전망하였다(7/11).
 -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7/17)으로 세계적인 소맥 경작지인 우크라이나 관련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맥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옥수수 가격은 작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분기 재고량 상승, 재고량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
 - 미 농무부는 6월 1일 기준 옥수수 재고량을 38억 5,400만 부셸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다(6/30).
 - 이에 따라 2013/14 시즌 기말 재고량 전망치도 12억 4,600만 부셸로 상향조정되었다(미 농무부 세계 곡물 수급 보고서, 7/11).
- 대두 가격은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13/14 시즌 및 2014/15 시즌 재고량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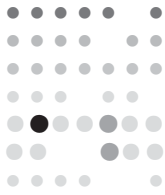


■ 세계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4.7.18 (현재)	2014.6.18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32.3	587.0	-9.3%
옥수수	371.3	441.5	-15.9%
대두	1176.8	1409.0	-16.5%

출처: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작성자 : 박지현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미국, 농식품 잔류농약 허용 한계치 규정 WTO에 통보(2014. 3. 24)⁹⁾

- 미국은 농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한계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농약 종류에 따른 잔류허용 한계치 규정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WTO에 통보하고 있다.

■ 농식품의 농약 잔류허용치 규정 ■

품목	농약	Parts per million (ppm)	발효일자
채소(콩류)	Ipconazole	0.01	2014. 3. 19
콩	Fenamidone	0.8	2014. 3. 12
인삼	Fenamidone	0.8	2014. 3. 12
양파(bulb)	Fenamidone	0.2	2014. 3. 12
양파(green)	Fenamidone	1.5	2014. 3. 12
옥수수(field)	Metconazole	30	2014. 3. 5
옥수수(pop)	Metconazole	30	2014. 3. 5
파파야	Chlorantraniliprole	4.0	2014. 2. 7
땅콩	Chlorantraniliprole	0.06	2014. 2. 7
땅콩(hay)	Chlorantraniliprole	90	2014. 2. 7

출처: Federal Register Volume 79, Number 53, 48, 43, 26.

9) G/SPS/N/USA/2643, G/SPS/N/USA/2642, G/SPS/N/USA/2641, G/SPS/N/USA/2632.



◆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안 WTO에 통보(2014. 2. 13)¹⁰⁾**

- 일본 노동후생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식품첨가물은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규격에 합치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제조, 가공, 수입,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은 종종 개정되기 때문에 최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은 일본의 최근 몇몇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 개정안 내용이다.

■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안** ■

식품첨가물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Prothioconazole	밀	0.4	0.07
	보리	0.4	0.35
	귀리	0.4	0.05
	옥수수	0.4	
	Sugar beet	0.3	0.25
	우유	0.004	0.02
	소(fat)	0.05	0.1
	돼지(fat)	0.05	0.01
Dicamba	밀	2	0.5
	보리	7	0.5
	콩	10	0.05
	아스파라거스	5	3
	Sugarcane	1	0.1
	소(fat)	0.07	0.2
	돼지(fat)	0.07	0.2
	달걀	0.01	0.05
Narasin	소(muscle)	0.02	0.05
	닭(muscle)	0.02	0.1

10) G/SPS/N/JPN/333, G/SPS/N/JPN/327, G/SPS/N/JPN/325/Rev.1.

식품첨가물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Cyprodinil	보리	3	2
	치커리	10	30
	양파	0.6	0.05
	당근	2	0.8
	레몬	3	5
	오렌지	3	5
	포도	3	5
	딸기	5	1
	아보카도	1	5

출처: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0752_00_e.pdf.

◆ 일본, 한국산 들깨 및 그 가공품 검사명령 실시(2014. 2. 24)¹¹⁾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들깨 및 그 가공품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2014년 2월 24일 검사명령을 실시하였다.
 - 2014년 2월 20일 한국산 들깨에서 지니코나졸 농약이 일본 기준치 0.01ppm을 초과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였다. 지니코나졸 농약성분이 각각 1.02ppm, 0.11ppm으로 연속 2회 위반되어 전수검사로 이행되었다.

■ 일본내 한국 통관보류 및 폐기 반송 사례(2014년 1~3월) ■

월	품목명	부적합내용	조치상황
1월	무가열섭취냉동식품 (꼬들배기무침)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균 양성)	폐기, 전량회수
	무가열섭취냉동식품 (오징어절임)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균 양성)	폐기, 전량회수
	야채가공 및 향신료 (고춧가루)	잔류농약 초과검출 (지페노코나졸 0.02ppm 검출)	폐기, 전량회수
2월	냉동필렛, 기타생선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균 양성)	폐기, 전량회수
	무가열섭취냉동식품 (비빔밥용채소)	성분규격 부적합	전량 소비
	신선들깨	잔류농약 초과검출 (지니코나졸 1.02ppm 검출)	전량 소비
	신선들깨	잔류농약 초과검출 (지니코나졸 0.11ppm 검출)	폐기, 전량회수
3월	위반사례 없음		

11)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싱가포르, 주류 물품세 인상(2014. 2. 21)¹²⁾

- 싱가포르는 주류에 대한 물품세를 25% 인상하는 안을 발표, 2014년 2월 21일 발효하였다.
 - HS 코드 8단위 48개 품목의 주류가 대상이다.
 - 소주, 스파클링와인, 막걸리, 위스키, 진, 보드카 등의 경우 리터당 70달러에서 88달러로 인상되었다.¹³⁾
 - 이중 소주(HS 21069064)와 막걸리(HS 22060091)는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다.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일본, 2014년도 수입식품 감시 지도계획 공고(2014. 3. 28)¹⁴⁾

- 일본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제도 감시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2014년 수입식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 계획을 살펴보면,
 - 축산가공식품인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내추럴치즈 등은 항균성물질,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기타 가금류 등은 항균성물질,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방사선조사,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 제거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농산가공식품인 냉동식품, 야채가공품, 과일가공품, 향신료, 즉석면류, 땅콩, 너트류, 씨앗류 등의 검사 항목은 항균성물질,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곰팡이, 유전자조작식품, 방사선조사 등이다.

1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3) <http://www.customs.gov.sg>.

14)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음료인 미네랄워터, 청량음료수, 알콜음료 등의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첨가물, 성분규격, 곰팡이균 등이다.

◆ 미국,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 발표(2014. 2. 27)¹⁵⁾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식품성분 표기 부분을 보기 쉽게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을 2014년 2월 27일 발표하였다.
- 새로운 라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가당(added sugar)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요구된다.
 - 1회 제공량(serving size)의 기준을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 식품내 함유됐을 경우,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칼륨(potassium)과 뼈(bone)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과 철분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비타민 A, C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다.

15)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원전사고 전후 일본의 농식품 수출입 변화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주는 시사점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 행 일 : 2014. 7.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408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